

## 이공본풀이

옛날이라 옛적에 짐진국 대감님은 가난공신 서난ᄃᆔ게<sup>1)</sup> 살고, 원진국 대감님은 막 부자로 잘살엇어예. 게신디<sup>2)</sup> 두 대감님들이 다 얘기가 없어. 얘기가 엇이난<sup>3)</sup>, 원진국 대감님이 짐진국 대감님을 좇안 간

“짐진국 대감님아, 읍서. 우리 절에 강 수록이나 드러보게마씀.”

허난.

“아이고, 난 절에 가젠허여도<sup>4)</sup>양 출령 갈 게 아무것도 엇우다게. 난 뉘, 앓양<sup>5)</sup> 갈 게 엇우다게.”

허난.

“허다 못허영 빈 찬물 혼 그릇이라도 정성을 들이고 가면 그것이 정성이니까 어떻허우파?”

허난.

“게민 경 험셴.”

허연. 원진국은 절에 가명 구루마에 슴빱 ᄃᆔ나<sup>6)</sup>, 송낙베<sup>7)</sup>여 장삼베<sup>8)</sup>여, 졸도 대백미(大白米)여, 소백미(少白米)여 막 실령<sup>9)</sup> 가고, 짐진국은 가정 갈 거 엇이난, 물 혼 그릇 평<sup>10)</sup> 아침이민, 밤이민 이제 춘 이슬을 맞히고, 낮인 춘 벼을 맞히명 장항 뒤에서 경 허명 지극정성을 헨 간 거라. 절에 간 원수록은 드련. 장대로 내어낸 저울리난, 막 하영 출령 간 원진국 대감님네는 출린 건 많이 출리나 정성이 부족허연 백근이 못 차 불고, 짐진국 대감님은 물 한 그릇 정성을 헨 갓인디 아, 백 근이 차분 거라. 게난 스님 허는 말이,

“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엇어도 하도 정성이 기특허니까 아덜을 취급시겨<sup>11)</sup> 줄 듯 허고, 원진국 대감님은 출령 온 건 많은디 정성이 부족 허난 딸을 취급시겨 줄 듯 허난 이제 내려 갑셴.”

헨.

---

1) 가난공신 서난ᄃᆔ게: '가난하고 서럽다'란 뜻.

2) 게신디: 그런데.

3) 엇이난: 없으니

4) 가젠허여도: 가려고해도

5) 앓양: 가지고.

6) 슴빱 ᄃᆔ나: 가득하게 하나.

7) 송낙베: 고깔을 만들 감.

8) 장삼베: 승려의 옷을 만들 감.

9) 실령: 실고

10) 평: 떠서.

11) 취급시겨: 처급(處給)시겨

“좋은 날을 골리 잡앙 합궁일(合宮日)을 무어 봅서.”

허난. 내려 완. 좋은 날 골리잡안<sup>12)</sup> 합궁일(合宮日)을 무엇더니만은, 짐진국 대감님은 아털을 낳고, 원진국 대감님은 딸을 난 거라. 이름이나 지와보젠 허연. 짐진국 대감님이 난 아들은 이제 사라국 사라도령으로 이름을 지우고, 원진국 대감님이 난 딸은 월강아미로 이름을 지왔인디<sup>13)</sup>. 간수륙 두어 된 내려오명 그냥 장난삼아 곁은 말이주게. 장난감아 원진국 대감님이 곤는 말이,

“양, 짐진국 대감님, 우리 둘이가 영 완 수륙 드령 가명 강, 당신이 아들 낳고 나가 딸을 나나, 나가 아들 낳고 당신이 딸을 나나, 우리가 구덕혼스<sup>14)</sup>허영 사둔 이추륙 허게양.”

허연. 장난말로 넘어가는 소리로. 경 헨 곁안 내려왔인디. 아닌게 아니라 이젠 사라도령허고 원강아미 나난. 이 애기덜이 혼 슬 두 슬 넘언. 혼인혈 때가 돼어오난, 월강아미신디 하간디서<sup>15)</sup> 중진<sup>16)</sup>이 오는 거라 부제로 잘살고 허난. 경 해도 시집을 아니만 가쿠덴<sup>17)</sup> 허는 거라. 아니만 가쿠덴 헛인디. 짐진국 대감님네 집에서 사라도령한티 이젠 시집오렌 허연 중진을 오난. 아, 대번칙에<sup>18)</sup> 대답을 허는 거라. 가쿠덴. 게난, 아버지 어머니 곤는 말이,

“아이고, 애야 스몏<sup>19)</sup> 현다 현 집이서 와도 다 물리쳐 똥, 경 가난헌 집이 강 어떻 살젠 느 그디 시집가젠 험디.”

허난. 그땐 베지도<sup>20)</sup> 안 혈 때주게.

“아버지, 어머니, 절에 갓단 내려오명 무시거옌 곁읍디가<sup>21)</sup>? 아버지 곁은 말 잊어봄데가<sup>22)</sup>?”

경 허명.

“구덕혼스 허지 안헛수가?”

경 허난.

“느 알앙 허라.”

12) 골리 잡안: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골라서.

13) 지왔인디: 지었는데.

14) 구덕혼스: 아기 구덕에 놓혀 키울 때 미리 서로 약혼시킴.

15) 하간디서: 여기저기서.

16) 중진: 중매

17) 아니만 가쿠덴: 아니만 가겠다고.

18) 대번칙에: 단번에.

19) 스몏: 사몏.

20) 베지도: 아기를 배지도.

21) 무시거옌 곁읍디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2) 잊어봄데가: 잊어버렸습니까.

허연. 이제 둘이가 혼인 허연 사느디, 애긴 벤 거 아니. 애긴 벤디 물구 덕 지언에 물 질레 간 오노렌 허난 편지 답장이 턱허게 마당에 털어지난, 그걸 봉간<sup>23)</sup> 익어 보난에. 사라도령이랑 서천꽃밭디 꽃감관(化監官) 꽃생인(化聖人)을 살레 오렌. 게난 월광아미 허는 말이,

“아이고, 나도 혼디 가쿠다. 나 혼자만 이디 잇이민 어떻힙니까, 나도 혼디 가쿠다. 가쿠다.”

허난.

“아이고, 베는 두룽둥 베<sup>24)</sup> 뉘고 어떻 허연 갈티?”

허난.

“가단 죽는 한이 잇어도 낭군님 딸앙가쿠다<sup>25)</sup>.”

허난.

“경 허렌.”

허연. 이제 서천꽃밭디레 돌아앗언<sup>26)</sup> 가느디. 헐 서산열락(西山日落)에 지어부난. 이제 어욱밭디<sup>27)</sup> 영 으지(依支)허연 눈 게, 천하 득은 목을 들런 즈지반반<sup>28)</sup> 운 거아니. 경 허난, 확 일어나젠 어욱을 심언 확 동긴게 손이 어욱에 베여먹은 거라<sup>29)</sup>. 게난 우리 손이 마디마디 잇는게 그대에 어욱에 비어부난 마디가 생긴 거고, 어욱이, 텅기단 보민 빨정헌 줄거리가 잇어예, 어욱에. 그것은 월강아미 피라, 그것이.

“아이고, 낭군님아, 저건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sup>30)</sup>?”

허난.

“제인 들어 제인장제네 집이서 우는 득이옌.”

허난.

“경 허파.”

허연. 이제 또 흐꿈<sup>31)</sup> 뉘 누워자노렌 허난. 지하 득이 목을 들런 즈지반 반 울어 가난.

“저 득은 어디서 우는 득이우파?”

허난

23) 봉간: 물건이나 돈 따위를 거저준다.

24) 두룽둥 베: 둥그렇게 차오르거나 부풀어 오른 베.

25) 딸앙가쿠다: 따라가겠습니다.

26) 돌아앗언: 데리고

27) 어욱밭디: 억새밭에.

28) 즈지반반: 닭의 울음소리를 표현한 것.

29) 베여먹은 거라: 베인 거라.

30) 득이우파: 닭입니까.

31) 흐꿈: 조금.

“만년들어 만년장제(萬年長者)네 집에서 우는 득이옴.”

허연.

“아이고, 경 허건. 낭군님아, 날랑양 저 집이 강 폴아두언<sup>32)</sup> 갑서. 난 질에 질병 나고, 발에 발병 난 더 이상 결영 가질 못 허쿠다.”

허난

“어서 경 허렌.”

허연. 이젠 그 집이 들어간

“이디 종이나 삼서.”

허난에. 제인장제는 앓아들서로

“야, 큰딸애기야, 저레 나상 보라<sup>33)</sup> 저디 누게 왔이니?”

“아이고, 아버지 종사렌 왓우다만은. 사지 맙서.”

또 흐꿈 시난에<sup>34)</sup>

“종 삼서.”

허난에.

“셋딸애기 나상 보라.”

“아이고, 아버지, 사지 맙서. 우리집이 신세 먹을 놈이 종이우다.”

죽은딸 애기 곶아,

“저 디 나상 보라 누게 왔이니?”

허난.

“종 사렌 험우다. 아버지 상 낫단양, 아버지 심심풀이라도 험서.”

허난. 경 험 나간

“얼마 받젠 험이네<sup>35)</sup>?”

허난. 보난 베는 이만이 불고

“애긴 이제 곧 날겨우다만은 어명이랑 돈 백 냥을 주고, 베 쏘굽에 잇 인 애기랑 은 백 냥을 줘서.”

계난

“경 허렌.”

허연. 이젠 돈 백 냥에 은 백 냥을 주언, 사난. 이젠 저 올라가젠 허난에

“아이고, 낭군님아, 가불민 이 애긴 나민 이름은 무신거옴 지옴네까?”

32) 폴아두언: 팔아두고.

33) 나상 보라: 나가 보아라.

34) 흐꿈 시난에: 조금 있으니까.

35) 험이네: 함이냐.

허난에 .

“이 애기랑 나걸랑, 아덜랑 낱걸랑 한락궁이로 지우고, 딸랑 낱걸랑 한락데기로 이름을 지와도렌.”

“젠디 본메본짱<sup>36)</sup>이나 주어똥 감서.”

아이, 내논 건 보난, 삼동냥 용얼레기<sup>37)</sup>를 딱 허게 꿩엿 반착을<sup>38)</sup> 주는 거라. 이거 반착 가지고, 나가 반착 가정 가켄. 경 헨 반착 주난, 그거 앓안. 사라도령은 이젠 서천꽃밭드레 가 분거 아니, 가 부난. 그날 밤인 즈자노렌<sup>39)</sup> 허난 천연장제가 호롱불 싸고 헨 문을 동동동동 두드리는 거라.

“아이, 누구 뉘시파<sup>40)</sup>?”

허난에.

“나, 천연장제.”

엔 허난.

“무사마썸<sup>41)</sup>?”

허난.

“나, 여기 온 이윽 몰르크냐?”

허난.

“아이고, 이제 베 쏘굽에 애기가 잇인디다가 베 속에 벤 애기 낱앙 석덜 열흘 백일은 뉘어사.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 백일이 뉘어사 몸 허락을 합니다.”

허난

“경 허넨.”

허멍 속안 넘어가서. 이제 그 애기 난. 아덜을 나난 한락궁이로 이름을 지은 거 아니. 한락궁이로 이름 지왔인디 그 애기 난 백일이 뉘난, 또 호롱불 들르고 허연 천연장제가 문을 동동동동 허난.

“이 문 열라, 이 문 열라.”

허난.

“아이고, 이 국에 법은 양 몰르쿠다만은 우리 국에 법은양, 이 애기가 흐꿈 켜 마당에 작데기<sup>42)</sup> 헤근앵에<sup>43)</sup> 들 타근앵에<sup>44)</sup> 으려씩씩 으려씩씩

36) 본메본짱: 증거물이 될 사물.

37) 삼동냥 용얼레기: 상동나무로 만든 빗.

38) 반착을: 반쪽을.

39) 즈자노렌: 잠자려고

40) 누구 뉘시파?: 누구 되십니까?

41) 무사마썸: 왜 그렇습니까.

42) 작데기: 막대기.

허영 들려가사<sup>45)</sup> 몸 허락을 험네다.”

허난. 알았젠 허연 또 넘어간 거라.

또 살았이난, 그 애기가 옥안, 마당에 작테기 헤영 강알에 담양, 몰타는 식으로 으려쇠쇠 행 들려가난. 또, 이젠 밤중이 완

“문 열라. 문 열라.”

허난. 이 국에 법은 모르쿠다만은 헤가난. 너, 이년 저년 날 속엿젠. 경헨 막 죽일팔로 허는 거 아니.

“큰뜰애기야 저것들 어떻 헤부느니?”

허난.

“죽여 붙서.”

“셋뜰애기야 어떻게 든 좋암직허니?”

“죽여 붙서.”

“죽은뜰애기는 어떻 험이민 좋암직허니?”

허난.

“아바지, 돈 백 냥 은 백 냥 좃 사 논거양, 죽여불민 그거 다 일러불 거난<sup>46)</sup> 뉘 벌역(罰役)이나 시겨 붙서.”

“그 말도 들언보난 맞덴.”

허연.

“계민 어멍이랑 굽 터진 항에 물 혼 항을 채완 놓고, 아덜랑 오늘 굴미 굴산노조방산아야산<sup>47)</sup>에 올라 강, 줍씨 닷 말 닷 뉘 칠세오리 앗안 강, 뜰 들 잇곡 헨 강, 그 밧 다 갈양 씨 뿌령, 갈양, 불러두영<sup>48)</sup> 오렌.”

헨. 뉘 벌역(罰役)을 시긴 거라.

계난, 어멍은 물을 서너 허벅 질어단 풍풍풍풍 비우난. 아, 굽 터진 항이 탁 막아져 분 거 아니. 어디서 영급(領給)을 준거라. 경헨 막아 전. 세 번 질어오난, 물 혼 항이 뉘 분 거라. 이젠 한락궁이도 간에, 올라간. 그 들진 밧<sup>49)</sup> 벨진 밧<sup>50)</sup>이영 간, 문딱 단장허연에, 줍씨 삭삭 뿌련, 몰허연 불련 허난, 확 허연 헤 진 거 아니. 이젠 집이 왓이넨에 한락궁이신더레

43) 헤근앵에: 해서.

44) 몰 타근앵에: 말 타서.

45) 들려가사: 달려가야.

46) 일러불 거난: 잃어버릴 거니까

47) 굴미굴산 노조방산 아야산: 아주 깊은 산중을 뜻함.

48) 불러두영: 밭아 두어서.

49) 들진 밧: ‘달이 지거나 떨어진 밧.’이란 뜻인데, ‘넓은 밧.’을 가리킴.

50) 벨진 밧: ‘별이 떨어진 밧.’이란 뜻으로, ‘넓은 밧.’을 가리킴.

허는 말이 천연장제가,

“아이고, 오늘은 멸망일(滅亡日), 고추일, 하와일 오늘 씨 뿌령은 곡식은 안 되는 날이난, 이제 강 그 좁씨를 닷 말 닷 뉘를 문딱 주워오렌.”

허는 거라.

“아이고, 나 이거 좃으레 어떻 가린.”

엔 허연.

‘강 이거 어떻 좃으리엔.’

울멍 올라가노렌 허난. 게염지<sup>51</sup>), 큰 장게염지 이디 움막 들어 간 장게염지가 좁씨 흐 방울 물언, 겨울 양석허젠<sup>52</sup>) 물영 값이난, 발로 바락허게 존동일<sup>53</sup>) 불른 거라. 경 블라부난<sup>54</sup>) 게염지는 허리가, 이디가 깃는덴. 경 헨 이젠

“아이구, 게염지야. 저 게염지야”

아, 강 문딱 좃으오렌 허난, 강 좃으레 간. 막 울단보난 새덜이 문딱 느려완에 오조조조 허멍 좁씨를 다 좃어다 논거라. 퍼쩍<sup>55</sup>) 깨어난 보난, 새들이 막 잇고 좁씨가 다 모아 전. 그걸 가정 제인장제네 집이 오난 제인장제가,

“아이고, 흐 방울이 또 떨어졌저. 빨리 강 그걸 좃으오렌.”

아이고, 첩 그걸 좃으레 가단 보난, 개미가 그걸 물언 겨울 양석허젠 값이난, 인척 쥐 불엇이민 나 두 불 걸음을 안 혈걸. 무사 이제사 좃이넨 허연. 경 헨 이제 그거 가전 오난. 이젠 뉘 벌역(罰役)도 아니 뉘거고. 이젠 노, 쉰 동일 꼬렌 허난. 산디짚 허연에 노 흐 서너 번 박박 멩게난 쉰 동이가 확허게 꼬아진 거 아니. 그 벌역(罰役)도 아니 뉘고. 경 허난, 흐를날은 천연장제 어디 가부난, 비는 축축허게 오고 허난에 한락궁이가 허는 말이,

“어머님아, 제인장제네 집 콩장막이나 털영 볍서.”

“무사?”

허난

“콩 잇진 콩이나 볍아 줍서. 나 먹저.”

허난. 경 허렌 허연에. 이젠 콩장막 털어단 콩 볍음이엔 빗자락 앓단 놓

---

51) 게염지: 개미.

52) 양석허젠: 양식하려고.

53) 존동일: 잔등이. 허리 부분.

54) 블라부난: 밟아버려서.

55) 퍼쩍: 벌떡.

고 허연에 볶으노렌 허난. 베끼디 갖단 한락궁이가 안터레 들어오멍 정지에 완.

“어머님, 어머님 혼저 저 올레 가 봅서.”

허난.

“무사?”

허난에.

“제인장제 불렀우덴<sup>56)</sup>.”

허난. 확허게 나가분 트멍에 빗자락이고, 남수리고 문딱 곱저분 거라. 젓으는 거 다 곱저동

“아이고, 어머니 제게<sup>57)</sup> 읍서. 뭐 험우과? 콩 다 카불엄수게<sup>58)</sup>.”

허난. 이젠 완, 젓젠은 허난<sup>59)</sup>, 아무것도 엇인 거 아니. 남술이<sup>60)</sup>도 곱저 불고, 빗자락도 곱저불고, 다 허난, 어멍 손을 솟창더레<sup>61)</sup> 꼭허게 눌린 거라

“어머니, 바른 말 험서.”

“아이고, 거 무신 말이고?”

“제인장제, 우리 아버지 아니지양? 어서 바른 말 험서.”

허난.

“기여, 느네 아방은 서천꽃밭디 꽃감관(化監官) 꽃생인(化聖人) 살레 갖젠.”

허난.

“알앗수덴.”

허연.

“어머니, 이제랑 범벅을 헤 줍서. 소금 닷 뉘 걸랑, 는쟁이 그루<sup>62)</sup> 닷 뉘 놓양, 범벅 두 덩어리만 헤주고, 또 소금 혼 줍이건, 춤 그루를 닷 뉘 놓아근앵에 범벅 두 덩어리만 헤줍센.”

허난.

“어서 걸랑 경 허렌.”

---

56) 불렀우덴: 부르고 있다고.

57) 제게: 어서 빨리.

58) 카불엄수게: 타고 있잖습니까.

59) 젓젠은 허난: 저으려고 하니.

60) 남술이: 넓적 길쭉한 나무로 만든 죽젓개.

61) 솟창더레: 솔바닥에

62) 는쟁이 그루: 메밀을 맷돌에 갈아 가루를 만들 때, 가루를 쳐내어 남은 것으로, 갈린 껍질과 가루가 뒤섞인 상태.

허연. 이젠 그거 해주난 어떻신디

“어머니, 제인장제네가 왕, 암만 어머니를 죽이켄 허고 어머니가 뭐를 해도, 나 어디 갓젠 곁으민 안 됩니텐. 비밀이우텐. 절대 굳지 맙서.”

헤 된. 서천꽃밭더레 가분 거라. 이젠, 가노렌 허난 제인장제넨 벌써 알 안, 천리둥이 개, 만리둥이 개를 내 논 거라. 한락궁일 강 물영오렌. 가노렌 허난 천리둥이 개가 물젠 왕왕왕왕 허멍 놀려든<sup>63)</sup> 거 아니. 범벅 소금 닷 뒤에 는쟁이 ㄱ루 닷 뒤 난 헌거, 흑허게 던지난. 그거 먹으난 짹짹 허난에게,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트멍에<sup>64)</sup> 천리도 가고, 또 가노렌 허든 또 만리둥이 개가 나오랑 막 물젠 허든, 범벅 짹짹 헌거 혼 덩어리 주든 그거 먹영, 물 먹으레 가분 틈영엔 만리 질도 나고 가고.

경 허연 간. 서천꽃밭디 간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간 앓안. 영 보난, 서천꽃밭디 열다섯 십오 세 안네에 죽영 간 애기들은 막 물을 질어감서. 겐디<sup>65)</sup> 부제칩<sup>66)</sup>이서 살앙 늦그릇에 밥 먹어난 애기들은, 이제 늦동에 허여 물 잉영<sup>67)</sup> 물 질영가단, 마이정당 쉼정당<sup>68)</sup>에 강 어디 칩 ㄱ뜨<sup>69)</sup> 것에나 뒤에, 발 걸령 푸터지민, 탁 그 사발이 털어져도 물만 손아져불주 사발은 안 벌러지주게. 게든 또 일어낭 강, 그 사발 가정 강, 물을 질어단 꽃밭디 강 물을 주민, 그 꽃이 막 살앙 막 히양삭삭<sup>70)</sup> 좋아지고, 막 가난하게 살앙 옛날엔 남박세기에<sup>71)</sup> 밥 먹고, 사기그릇에 밥먹고 경 헤난 애기들은, 물 잉영 가당 발 탁 창 푸터지민<sup>72)</sup>, 남박세기도 벌러져불고<sup>73)</sup> 사기그릇도 벌러져불고 허민 물거령 갈 그릇이 엇어. 그릇이 엇이민 꽃에 물은 못주민, 꽃은 막 검뉴울꽃<sup>74)</sup> 웨영 시들시들 물리와불민<sup>75)</sup>, 꽃감관(化監官)은 꽃춘심 오랏당 이거 누게 꽃이고 허영, 아랫저고리 걷어 세왕. 이 꽃 잘 관리 아니헛젠 막 두드러부는 거주게. 경 두드러불민, 그 애기덜은 인간덜에 돌아왔앙. 날 낳안 나 아바지, 날 낳안 나 어머니, 무사 나 멩 졸르게<sup>76)</sup> 납디겐 허영, 비세 ㄱ찌 울어불민, 형제간들도 즈박즈박허고 애기덜,

63) 놀려든: 달려든.

64) 가분 트멍에: 가버린 틈에.

65) 겐디: 그런데.

66) 부제칩: 부잣집

67) 잉영: 머리카 어깨 따위의 위에 이다. 이어서.

68) 마이정당 쉼정당: 땡땡이 덩굴의 한 가지.

69) 칩 ㄱ뜨: 칩 같은

70) 시양삭삭: 몹시 흰.

71) 남박세기에: 나무바가지에.

72) 푸터지민: 넘어지면.

73) 벌러져 불고: 깨져 버리고

74) 검뉴울 꽃: 시들어 가는 꽃.

75) 물리와불민: 말려버리면.

경 허영 막 헤가난. 무에낭 상가지에 앓앙 그걸 보단, 산손가락을 꼭허게 짠. 피를 흔 방울을 똑허게 떨어친 거라. 떨어치난 그 물 질어단 서천꽃밭디 주난, 꽃들이 다 검뉴울 뉘분 거아니. 아이, 게난 아방, 꽃감관 꽃생인은 꽃춘심 완 보난 꽃밭디 문딱<sup>77)</sup> 꽃 검뉴울이 뉘 거라. 게난 이거 어평헌 일이고 허난, 애기덜 곤는 말이,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어떤 총각이 앓안 피 빠네 물에 놔부난, 그 물을 떠당주난<sup>78)</sup> 이추룩<sup>79)</sup> 험우다.”

허연. 주천강 연훼못덜 딱 내려산 보난. 아닌게 아니라 무에낭 상가지(上枝)에 어떤 도령이 앓앙 잇인 거라.

“너 누게냐? 이리 내려오라.”

허난. 내려오난.

“너 성진땅이 어디냐?”

허난.

“나 성진땅은, 이제 아버지는 사라국 사라도령이고, 어머니는 월광아미고, 우리 성하르방<sup>80)</sup>은 짐진국 대감이고, 우리 웨하르방<sup>81)</sup>은 원진국 대감이옴.”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헌 거라. 겐디, 확실헌 거를 몰라. 게난, 은동이에 물 떠단, 이젠 아방 피도 흔 방울, 아들 피도 흔 방울 경 험, 물 우터레<sup>82)</sup> 똑 떨어치난<sup>83)</sup> 그것이 동골동골동골 떠 덩기단<sup>84)</sup> 탁허게<sup>85)</sup> 간 합수가 뉘 붙은 거라. 아, 영 허난 내 자식이 분명허다. 게난, 옛날부터 자식을 잘 모르면은, 그 피 검사허영 우리 그 디엔에이 검산가, 무신 거 허는 법. 그것도 뉘고. 게난

“설운 아들아, 느 오명 보난 발등 친 물 엇어냐?”

“아이고, 잇입데다.”

“게, 오단 보난 무릅<sup>86)</sup> 친 물 엇어냐?”

“잇입데다.”

---

76) 멍 졸르게: 멍 짧게.

77) 문딱: 전부. 모두.

78) 떠당주난: 떠다주니.

79) 이추룩: 이렇게.

80) 성하르방: 성할아버지.

81) 웨하르방: 외할아버지.

82) 우터레: 위에.

83) 떨어치난: 떨어뜨리니.

84) 덩기단: 다니다가

85) 탁허게: 탁하게.

86) 무릅: 무릎.

“오단 보난 목 친 물 엇어나?”

“잇입데다.”

“그거이 느네 어명이, 느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단, 느네  
어명은 죽엇저.”

“아이고, 경 헛수과? 게른 서천꽃밭 구경이나 시겨줍서”

게난 아들 들양 서천꽃밭더레 간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검뉴울 꽃이여.”

허믈 똑기<sup>87)</sup> 꺾으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싸움혈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거논이 씨멜죽(種滅族) 혈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막 웃음 웃을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놓고

요건 무신 꽃이우파?”

허믈.

“그건 사름 살리는 꽃이여.”

허믈 똑기 꺾어 난.

“알앗수덴.”

허연. 이젠 어명국, 어명 신디 좇아앗엉 이젠, 인간에 온 거 아니. 켜 완  
보난, 벌써 제인장제네 켜당<sup>88)</sup> 일족이 다 모인 거라. 한락궁이 오민 막 죽  
이젠. 경 허연 다 모영 가가난 다들 와상와상 막 헤가난.

“아이고, 상전님네들 어명 허난 영 헛우과?”

---

87) 똑기: 똑.

88) 켜당: 권당(眷黨).

허연. 웃음 웃을 꽃을 내난, 다글다글 흥그난<sup>89)</sup> 그자 켄당(眷黨) 들이 막 하하하하 웃이멍 다 자빠지는 거라. 하하호호 막 헨. 겐 싸움혈 꽃 내어 난, 와글와글 흥글어 가난 서로가 머리들 메멍 막 싸움을 허는 거라. 이젠 씨 멜죽혈 꽃을 내난, 와글와글 흥그난 다 죽어분 거라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 어디 갓이고.”

허노렌 허난. 장방(長房) 쏘곱<sup>90)</sup>에서 제일 죽은딸, 죽이지 못한 죽은딸

“아이고, 상전님.”

허멍 나오난

“야, 느가 상전이주. 나가 상전이가? 우리 어멍 잇인디 곶아 주민. 나, 느 살려주마”

허난. 뒤에 간 보난 신돔박낭<sup>91)</sup> 아래, 돔박낭 아래 간, 청댓섭<sup>92)</sup>으로 목 걸련에 영 목 메영 돔박 낭 아래서 죽여분 거라. 게난 아이고, 이거 보난 거미줄은 막 헤영허게 쓰고,

“아이고, 설운 어멍 이거 나 엇이난. 초대김, 이대김, 삼대김 받안 영 죽엇구나.”

허연.

그 거미줄 써난 법으로. 지금 저 고리동반에<sup>93)</sup> 너울지, 너울지. 우리 어디 굻허레 가멍 공깃상<sup>94)</sup>에 항상 댓섭<sup>95)</sup> 헤영을 찌르나, 돔박낭 행, 영 찢렁 노는, 고망 베롱베롱 헨. 영 동글동글 헨 떡 쏘곱에 담양 헨 거. 그 법으로 저 너울지 허고. 이젠 대로 목 즐란<sup>96)</sup> 죽엇젠 허영 댓섭으로 영 동골락허게 영영영영 꼬웁니다 그거. 경 꼬아 놓고, 돔박낭 아래서 죽엇젠 허영 돔박낭 영 찢르고.

그 땅을 판 거라. 판 보난 어멍 뼈만 슬그랑허게<sup>97)</sup> 남앗이난. 피 오를 꽃, 슬 오를 꽃, 오장육부, 말 곶을 꽃, 사름 생길 꽃 난. 연시 번을 송악낭<sup>98)</sup> 막데기로

“이건 내가 어머니 때리는 메가<sup>99)</sup> 아니고, 어머니 살리기 목적으로 때

89) 흥그난: 흐드니.

90) 쏘곱: 속.

91) 신돔박낭: 동백나무.

92) 청댓섭: 청댓잎.

93) 고리동반: 고리동반떡을 이룸. 이는 소위 ‘심방떡’이라 불리는 것으로, 방석 역할을 하는 병개떡과 7개의 방울떡으로 이루어짐. 떡 위에는 너울지를 씌움.

94) 공깃상: 삼명두(요령, 신갈, 산판)을 모신 상.

95) 댓섭: 댓잎.

96) 목 즐란: 목 졸라서.

97) 슬그랑허게: 몸 형체가 없고 뼈만 남아 있는 상태.

98) 송악낭: 두릅나뭇과의 상록 활엽 덩굴성 식물.

리는 맵니덴.”

허연. 세 번을 딱딱 후리난 와들랭이<sup>100)</sup> 어멍이 일어나멍

“아이고, 나이 봄 즈이난 너미 자젓저.”

허난. 그 때엔 이젠 어머님 살려 된. 어멍 누워난 자리도, 땅도 하도 아까운 거라. 어멍 누웠 잇어난 거 어땡 내불린. 그걸 동골동골 손에 뉘 멘든 거라. 계난, 개인집이 굿혈 때는 일곱 방울, 큰굿 스당클(四祭棚) 메영정의 곶은 디 강, 당클 네 개 메영 대 세왕 허는 디는 열네 방울, 곱빼기. 심방침이 굿혈 때는 곱빼기 곱빼기 허난, 이제 스무으덥 방울. 네 부를 허니까. 스무으덥 방울 헤영 허곡, 아랫건 이제 병거떡<sup>101)</sup>이엔 흰거, 등글락허게<sup>102)</sup> 멘들안 그 우터레 놓아근에게, 이제 고리동반 허는 법. 계난 이공본은 그것이 주목예.

---

99) 메가: 매가.

100) 와들랭이: 급히 벌떡 일어나는 모양.

101) 병거떡: 신에게 바치는 떡을 고리동반떡이라고 하며, 병거떡과 방울떡으로 이루어지는데, 병거떡은 밑에 받치는 방석 역할의 하는 떡.

102) 등글락허게: 동그렇게.